

한국 바이오산업 아직 “태동기”

삼성경제연구소, 전통비중 높고 기술수준 낮아 ... 생명공학 취약

한국의 바이오(BT)산업은 <태동기> 수준으로 기술수준도 선진국의 55%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.

삼성경제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<바이오산업의 최근동향> 보고서에 따르면, 바이오산업을 태동기와 도입기, 성장기로 구분할 때 한국은 태동기, 미국은 성장기에 해당하며, 한국이 도입기로 변천하는 단계이지만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.

반면, 미국은 1976년 첫 바이오기업이 탄생한 이후 약 10년을 주기로 바이오신약 부문에서 변곡점이 발생해 이미 1990년대 초부터 성장기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.

국내 바이오산업은 전통산업의 비중이 높고 기술수준도 취약한 것으로 지적됐다.

전체 바이오산업 중 하이테크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절반에 그친 반면 미국의 약 80%에 달했고, 전반적인 기술수준도 선진국의 55%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.

또 바이오 분야의 세계시장은 2003년 기준으로 약 630억달러에 달하는데 바이오신약 부문이 380억달러로 전체의 약 60%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.

삼성경제연구소는 2010년에는 바이오신약 및 치료부문에서만 약 1700억달러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했다.

국내 바이오 시장은 약 1조2000원 수준으로 생물의약품 부문이 약 70%를 차지하고 있는데 혈액제제, 백신, 항생제 등 기초제품의 비중이 높은 반면 항암제, 면역제제 등의 유망 생명공학 분야는 비중이 낮은 편이다.

세계 바이오산업에서 한국의 비중은 약 2%로 집계됐다.

이밖에 국내서 영업중인 200여개 바이오기업의 평균 연령은 5년으로, 연간 15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리는 것으로 분석했다.

<화학저널 2005/09/20>